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¹⁾

권 태 진*

1. 글로벌 개관

지난해 3.1% 성장한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에는 성장률이 2.1%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성장률이 2.4%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금융 긴축 상황과 부진한 외부 수요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EMDE)의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에 대한 전망은 예측 기간 하향 조정되었으며, 최신 자료로 갱신되면서 2023년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하향 조정되고 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소비재 수요가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표 1).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가 더욱 확대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어 예상보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촉발하게 되면 글로벌 성장은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약한 성장 전망과 높아진 위험은 잠재 성장의 장기적인 둔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 금융 상황의 급격한 긴축이라는 충격이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각국은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은행 실패로 인해 세계 금융 규제개혁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며,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의 부채 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개발 경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이

1) World Bank Group. June 2023. *Global Economic Prospects*.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NW, Washington, DC.

*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kwontj@gsnj.re.kr).

필수적이다.

〈표 1〉 세계 주요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전망

지역 및 국가	전년 대비 실질 GDP 변화(%)						2023년 1월 기준 %P 차이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연 도								
세계 전체	-3.1	6.0	3.1	2.1	2.4	3.0	0.4	-0.3
선진국	-4.3	5.4	2.6	0.7	1.2	2.2	0.2	-1.4
- 미국	-2.8	5.9	2.1	1.1	0.8	2.3	0.6	-0.8
- 유럽	-6.1	5.4	3.5	0.4	1.3	2.3	0.4	-0.3
- 일본	-4.3	2.2	1.0	0.8	0.7	0.6	-0.2	0.0
개발도상국	-1.5	6.9	3.7	4.0	3.9	4.0	0.6	-0.2
동아시아 및 태평양	1.2	7.5	3.5	5.5	4.6	4.5	1.2	-0.3
- 중국	2.2	8.4	3.0	5.6	4.6	4.4	1.3	-0.4
- 인도네시아	-2.1	3.7	5.3	4.9	4.9	5.0	0.1	0.0
- 태국	-6.1	1.5	2.6	3.9	3.6	3.4	0.3	-0.1
유럽 및 중앙아시아	-1.7	7.1	1.2	1.4	2.7	2.7	1.3	-0.1
- 러시아	-2.7	5.6	-2.1	-0.2	1.2	0.8	3.1	-0.4
- 튀르키예	1.9	11.4	5.6	3.2	4.3	4.1	0.5	0.3
- 폴란드	-2.0	6.9	5.1	0.7	2.6	3.2	0.0	0.4
남미 및 칼리브	-6.2	6.9	3.7	1.5	2.0	2.6	0.2	-0.4
- 브라질	-3.3	5.0	2.9	1.2	1.4	2.4	0.4	-0.6
- 멕시코	-8.0	4.7	3.0	2.5	1.9	2.0	1.6	-0.4
- 아르헨티나	-9.9	10.4	5.2	-2.0	2.3	2.0	-4.0	0.3
중동 및 북아프리카	-3.8	3.8	5.9	2.2	3.3	3.0	-1.3	0.6
- 사우디아라비아	-4.3	3.9	8.7	2.2	3.2	2.5	-1.5	1.0
- 이란	1.9	4.7	8.7	2.2	2.0	1.9	0.0	0.1
- 이집트	3.6	3.3	2.9	4.0	4.0	4.7	-0.5	-0.8
남아시아	-4.1	8.3	6.0	5.9	5.1	6.4	0.4	-0.7
- 인도	-5.8	9.1	7.2	6.3	6.4	6.5	-0.3	0.3
- 파키스탄	-0.9	5.8	6.1	0.4	2.0	3.0	-1.6	-1.2
- 방글라데시	3.4	6.9	7.1	5.2	6.2	6.4	0.0	0.0
사하라以南 아프리카	-2.0	4.4	3.7	3.2	3.9	4.0	-0.4	0.0
- 나이지리아	-1.8	3.6	3.3	2.8	3.0	3.1	-0.1	0.1
- 남아프리카	-6.3	4.9	2.0	0.3	1.5	1.6	-1.1	-0.3
- 알골라	-5.6	1.1	3.5	2.6	3.3	3.1	-0.2	0.4
실질GDP								
- 고소득국	-4.3	5.4	2.8	0.8	1.3	2.3	0.2	-0.3
- 중소득국	-1.2	7.1	3.4	4.2	4.0	4.1	0.8	-0.3
- 개발도상국	1.4	4.2	4.8	5.1	5.9	5.9	0.1	0.3
- 개발도상 상품수출국	-3.7	5.1	3.2	1.9	2.8	2.9	0.0	0.0
- 개발도상 상품수입국	-0.3	7.9	3.9	5.0	4.4	4.5	0.9	-0.4
세계 교역량	-7.8	11.0	6.0	1.7	2.8	3.0	0.1	-0.6

주: 2020-21년 실제치, 2022년 추정치, 2023-25년 전망치.

자료: 세계은행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충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고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정책 등이 겹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올해 초 나타난 세계 경제 활동의 탄력성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 재개에 힘입어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은 연초 예상보다 강했다. 중국과 미국의 탄력적인 소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활동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물가 회복을 위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둔화는 2020년대 전반기(2020~2024) 동안 이미 침체한 성장 기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2023년 상반기의 평균 성장률은 3.4%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30년 중 성장률이 낮은 반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경기 순환 역학과 세계 경기 침체의 현재 추세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 금융 상황은 정책금리 인상과 최근의 금융 불안으로 인해 긴축 국면에 있다. 많은 은행이 정책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미실현 손실을 경험했다. 일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예금자 이탈과 시장 변동성이 발생했다. 미국과 유럽은 올해 초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으나 세계 금융시장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 은행의 혼란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등 거시 경제 정책의 취약성이 뚜렷한 국가들은 성장 둔화와 대규모 통화 가치 하락, 국가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 등 금융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을 맞았다. 개발도상국의 2023년 성장 전망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불황을 촉발한 지 3년 이상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오늘날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EMDE)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간 이동 및 국경 폐쇄가 종료되면서 낙관론이 빠르게 확산하였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개발도상국은 뚜렷한 슬럼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은 2022년 4.1%에서 2023년 2.9%로 둔화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간혀 긴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4년 말까지, 개발도상국의 약 3분의 1이 1인당 소득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들, 특히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들 국가 중 약 3분의 1이 2024년 1인당 소득이 2019년보다 평균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 은행 그룹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위험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글로벌 금리 인상 주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에 따르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각별히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높은 금리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금융 위기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저소득 국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취약하다. 개발도상국의 평균과 비교하여 이들 국가의 정부지출은 적은 편이다. 심지어 국민 소득이 GDP의 3%에 불과한 국가도 있다. 이자 지출액이 소득의 5분의 1을 넘는 나라들은 다음 충격에 대처하거나 성장을 되살리는데 필요한 투자를 할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다. 또한, 생산성, 무역, 노동력 및 투자 증가를 포함한 모든 세계 성장의 주요 동인은 향후 10년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개발 목표인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방지하고, 분쟁 이후 신속하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은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빠른 성장과 더 역동적인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요구된다.

세계은행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와 2024년에도 여전히 취약할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경기하강의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 성장이 2022년 3.1 퍼센트에서 2023년 2.1 퍼센트로 둔화한 후, 2024년에는 2.4 퍼센트까지 상승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은행 부문 스트레스가 개발도상국에 전이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지지부진한 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 위기의 전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 특히 선진국 은행은 정책 전망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려면 가능한 한 조기에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하고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파괴적인 파급 효과의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통화 당국은 자본 유출, 통화 가치 하락 및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기준과 자본 및 유동성 버퍼를 공유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진 경제권의 은행으로부터 금융 충격 전이를 막고 개발도상국의 변동성 있는 자본 흐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 준비 완충액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해 개발도상국은 세입을 늘리기 위한 세금 징수 및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들의 세입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 평균을 훨씬 밑돌았고, 원조 공여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원조 재원 이 그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국내 자원 동원, 지출 효율성, 그리고 더 나은 부채 관리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 성장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잠재 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가속화, 보건 시스템 강화, 학생 학습 개선 및 여성 및 고령 노동자의 노동력 참여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커진다. 무역 및 민간 자본 동원을 촉진하는 정책, 특히 디지털 기술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채무불이행의 완화와 세계 금융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국제금융기구가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고, 채무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공공채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은행 실패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서비스 중심의 소비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교역은 위축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약세의 결과로 2022년 고점 이후 상당히 하락하였다. 성장 전망이 어두운 데다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로 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어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였다. 전 세계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왔고, 이는 지속적인 통화 긴축을 낳았다.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이 더 큰 금융 부담에 직면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금융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1.1. 세계 무역

2023년 상반기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이 글로벌 산업생산 약화와 맞물려 둔화하였다. 이에 반해 서비스 무역은,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 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국제 관광객 수는 2022년엔 2019년의 63%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9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선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및 공급업체의 납품 시기는 2023년 상반기에 거의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서비스 위주에서 벗어나 무역이 가능한 상품으로 수요 구성이 변화하면서 무역이 증가하였다. 수요가 팬데믹 이전 구성으로 점차 돌아가면서 이제는 무역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회복이 주로 서비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이는 상품 수요를 통해 교역 상대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제한할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과 일부 주요 경제국의 내수 지향적인 정책을 따르려는 시도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무역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Goes and Beckers, 2022).

세계 무역 성장률은 2022년 6%에서 2023년 1.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소비가 팬데믹 이전의 재화와 서비스 간의 혼합으로 돌아서면서, 무역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2024년에는 무역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2.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역 전망은 예상보다 부진한 글로벌 수요, 긴축적인 세계 금융 여건, 주요국 간 무역 긴장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 조치의 추가 상승 등 다양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Aiyar et al., 2023; Metivier et al., 2023).

1.2. 상품 시장

에너지 가격은 2022년 3분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당히 하락하였다. 예상보다 따뜻한 북반구 겨울은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및 전력 소비를 감소시켰다. 2023년 현재까지 유가는 평균 \$80/bbl을 기록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심했다. 이러한 변동성은 2023년 1분기 세계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OPEC+ 회원국들이 4월 초 1.16 mb/d의 산유량 감축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2023년 기간 동안 OPEC+가 예상한 총감축량을 전 세계 수요의 3.6%로 전망케 한다. 러시아는 수출량의 변화 없이 석유 수출 대상국을 변경했다. 국제적으로 조정된 수출 가격 상한선(현재 \$60/bbl로 설정) 또한 수출

에 구속력이 있는 제약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속 가격은 2023년 초 중국의 강력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회복했다. 올해 곡물 및 유가를 포함한 대부분 작물의 생산 전망이 긍정적임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다.

원유 가격은 2023년 평균 80달러/bbl로 1월 전망보다 8달러/bbl 하향 조정되고, 수요의 완전한 회복세를 반영해 2024년에는 82달러/bbl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국가들은 높은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에 대응하여 이미 소비구조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2024년에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의 효율성 증대와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팬데믹 이전의 5년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부진할 경우 에너지 가격은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3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망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격 전망에 대한 위험은 미국 원유 생산의 확대 부족, OPEC 회원국들의 낮은 수준의 예비 생산 능력, 그리고 원유 생산 카르텔이 감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금속 가격은 2015-19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23년과 2024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하락은 글로벌 수요 둔화뿐만 아니라 지난해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회복도 반영한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거나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금속 가격은 더 높을 수 있다. 최근 몇 달간 중국이 전 세계 수요 증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 발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농산물 가격은 곡물과 유지 종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7.2% 하락하고 2024년에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식품 가격은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으며, 통화 약세와 운송 차질의 결과로 일부 국가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지수는 2024년 팬데믹 이전의 명목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생산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기상이변의 패턴(신흥 엘니뇨 포함), 상품 수출제한 등 무역 규제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불안은 심각한 기상 현상을 반영하여 2023년 7.2% 하락하고 곡물과 유지 종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에 더욱 완화되리라 전망된다. 식량 불안정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지정학적 갈등 및 왜곡된 무역 조치를 반영하며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1.3. 글로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거의 모든 인플레이션 대상 경제에서 목표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4월의 세계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보다 7.2%, 2022년 7월의 최고치인 9.4%보다 하락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완화는 공급망 약화와 함께 상품 가격이 2022년 최고치 아래로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조정으로 2023년 1분기 세계 인플레이션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완화되었다. 개발도상국의 2023년 전반기 3개월 평균 핵심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달 동안 다소 둔화하였으나, 회복 속도는 빨랐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세계 인플레이션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2015-19년 평균을 상회하고, 더 오랜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압력이 완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급 능력 부진은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과 수요는 선진국 경제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하는 핵심 동인으로 보인다(Bernanke and Blanchard, 2023).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에너지 비용이 물가 상승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최종소비재의 가격 급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재정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Pill, 2023).

일부 선진국, 특히 유로 지역에서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파생된 장기 인플레이션 보상 측정치가 작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될 위험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 지역의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2023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단기 인플레이션 예측의 분포도 눈에 띄게 확대되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5년간 인플레이션 목표는 개발도상국 20개 중 1개만이 2010-19 평균 수준을 1% 포인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 6개국 중 1개국 정도만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있다. 향후 중국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세계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노동 시장을 포함하여, 중국 경제의 침체로 제한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회복은 과거 성장 가속화 시기와는 달리 상품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경제 : 최근의 발전과 전망

선진국의 경제 활동은 2023년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둔화하였지만, 올해 말에는 상당히 약화될 전망이다. 과거 및 현재 진행 중인 통화 정책 금리 인상, 은행 부문 스트레스 속의 긴축적인 신용 조건, 노동 시장의 유연화 및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운이 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제 활동 재개 및 지원 정책을 반영하여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반등한 후 2023년 말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 선진 경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노동 시장이 강력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의 급격한 둔화를 막았기 때문에 2022년 말과 2023년 초의 선진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덜 둔화하였다. 노동 시장의 긴축은 노동력 참여율이 하락하는 등 노동 공급의 둔화(일부는 조기 은퇴 증가 때문)와 미국에서는 취업자의 노동 시간 감소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로 2023년 4분기, 광범위하게 강력한 소비가 뒷받침되어, 미국에서 분기별로 GDP가 1.1% 증가했다. 낮은 에너지 가격, 공급 병목 완화, 그리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재정 정책 지원을 반영하면서, 유로 지역 GDP는 연간 0.3% 성장했다.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연평균 0.7%로 둔화하리라 전망된다. 이는 2022년 초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 선진국들의 은행권 스트레스로 인해 신용 여건이 제한적일수록 2023년 내수가 더 둔화할 것이다. 2024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유로화의 가치 상승으로 1.2% 정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하반기의 성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4년 성장률 회복은 통화정책의 금리 영향이 더 지연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1년 반 동안의 급격한 정책금리 상승의 지연된 효과의 결과로 2023년과 2024년 초까지 성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은행 실패는 신용 창출의 둔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용 경색은 또한 단기 활동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소비는 회복력이 있지만 상당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기간에 축적된 많은 저축이 고갈되고, 비정상적으로 긴축적인

노동 시장이 균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높은 차입 비용과 긴축적인 금융 조건이 가계 지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소비와 주택 투자의 둔화는 2023년 하반기쯤 경제 활동의 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1.1% 성장 후 2024년에는 미국 경제가 약해져 0.8%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통화 정책의 긴축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년 말에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에서는 따뜻한 날씨로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지면서 연초의 예상보다는 성장률이 탄력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에너지 가격 압력은 사라지고 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노동 시장의 강세, 강력한 임금 상승, 높은 가스 및 전기 가격으로 인한 지연 효과 및 물가 압력 확대를 반영하며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통화 긴축 정책 효과가 지지부진해 선진 경제의 성장률이 2022년 3.5%에서 2023년 0.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성장률을 1월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은 연초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와 에너지 가격 전망치 하향 조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바닥을 찍은 뒤 회복 기제(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개혁 및 투자에 힘입어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1.3%로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망치를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예상보다 장기간 긴축적 통화 정책 효과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들의 동조화된 통화 긴축의 정책 지연 효과가 대외수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2023년 성장률이 0.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하반기에는 수입 물가 급등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제 궤도를 달리면서 물가 압력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임금 상승률의 약세는 소비자 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성장률은 부분적으로 거시 경제 정책 지원의 점진적인 완화의 결과로 2024년에 0.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 중국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2023년 초에 반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관련 활동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여, 부동산 부문은 광범위한 정책의 뒷받침으로 침체의 장기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개발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미완성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한편, 상품 무역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특히 국내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을 견인함에

따라 2023년 성장률은 5.6%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는 사회 기반 시설 관련 경기 부양책이 퇴색하고 높은 부채 수준이 부동산 부문 회복에 부담을 줌에 따라 완만하게 회복 하리라 예상된다. 취약한 외부 수요 또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경제활동 재개가 서비스 무역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서비스 활동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의 활동 둔화는 전체 무역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이 다소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치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 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이라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경제 재개의 탄력이 사라지는 가운데, 소비 둔화가 상쇄되면서 2024년에는 성장률이 4.6%로 둔화될 것이다. 주요 하방 위험으로는 중국의 수출 회복세 둔화,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세계 성장 및 무역의 예상보다 급격한 둔화, 파괴적인 코로나19의 지속 가능성 등이 있다. 더 강력한 소비 회복은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3.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2023년에 거의 전적으로 중국의 경제 재개로 인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현저하게 둔화할 것이다. 긴축적인 국내 통화 정책, 재정 건전화, 그리고 외부 수요의 장기적 약세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비록 선진 경제의 은행 스트레스가 지금까지 그라왔지만, 개발도상국의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신용등급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제한적인 세계 금융 상황이 성장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소득국에서는 높은 빈곤율이 경제회복에 부담을 줄 것이다.

3.1. 최근의 상황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2023년 초에 다소 확고해졌다. 많은 국가에 대한 외부 수요는 중국의 성장 회복과 선진 경제의 예상치 못한 회복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내수 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 신뢰도는 2022년 마지막 분기의 저점보다 약간 개선하였지만, 최근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 서비스 활동도 시작되

었으며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Service PMI)는 여러 대형 신흥개도국에서 견고한 확장을 나타냈다. 신흥개도국의 금융 스트레스 추정치는 지난해 이후 대체로 감소했지만, 국내 및 선진국 통화 정책 긴축을 모두 반영하며 자금 조달 비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산업생산 및 건설 등 금리 움직임에 민감한 부문의 투자 및 산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하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1분기에 다소 반등했다. 신흥개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의 신규 주문은 2022년 상당 부분 위축 신호를 보낸 후 생산량을 완만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관광 흐름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반응이 느리기는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회복되었다.

에너지 가격(특히 석탄 및 가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출업체들의 활동은 견고하여 수출 실적 상승의 장기화에 따른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다. 선진 경제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속 가격의 진정은 신흥개도국 금속 수출업체들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들 중 많은 업체는 긴축적인 자금 조달 조건으로 인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 농산물 수출업체들의 경우 안정적인 높은 가격이 기계와 장비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함으로써 차입 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농산물 수출업체들 사이에서는 높은 비료 비용이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흥개도국 상품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에너지 수입 비용의 감소는 소비자들과 산업 활동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저소득 국가 전반에 걸쳐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높은 가격은 특히 국제적 분쟁, 기상악화 충격 및 생산 비용의 상승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 취약한 국가와 소규모 농산물 생산국에서는 계속해서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상당한 자금 조달 필요성과 함께 부채 서비스 비용의 증가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3.2. 전망

중국 경제의 반등으로 2023년에는 EMDE의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통화 긴축(국내 및 선진국 통화 정책 파급 효과 및 대외수요 둔화로 인한)으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4.1%에서 2.9%로 하락할 전망이다.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 긴축 효과가 줄어들고 자연재해, 전력난, 정치적 혼란 등 국내 부담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2024년 3.4%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흥개도국 및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을 0.6% 포인트 상향 조정된 주요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중국에 대한 개선된 단기 전망은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예상보다 큰 부양책을 반영한다. 러시아에서는 올해 에너지 수출이 지속되는 흐름 때문에 당초 전망보다 위축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개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부 원조 공여국의 지원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회복은 상품무역 보다는 서비스 무역 중심으로 전개되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활동 회복은 동남아 국가로의 관광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신흥개도국에 대한 경제성장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신흥개도국은 2023년 예상보다 강력한 선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미미하게나마 받을 것이다.

많은 EMDE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을 계속 긴축하고 있거나,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 긴축의 전승 지연을 고려할 때, 노동 시장과 소비가 둔화하는 등 성장세는 연중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시장 가격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많은 EMDE에서 인플레이션 조정 정책금리가 더 상승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2024년 내내 신흥개도국의 경제 활동에 지속적인 발목을 잡을 것이다.

글로벌 긴축 주기는 2023년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한 국가 신용 프로필을 가진 EMDE의 성장 전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세계 금융 상황이 강화되면서 이들 경제에 대한 전망은 반복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상품 가격 상승의 충격에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 수준과 거시 경제 안정성이 모두 악화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상품 수입국의 성장률은 2022년 5.3%에서 2023년 4.2%로 떨어질 전망이다. 에너지와 식품에 대한 국내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대부분 국가의 민간 수요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일부 대형 상품 수입국의 거시 경제 취약성 증가는 기업 신뢰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제외한 상품 수출국의 성장률은 4.2%에서 2.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산업 활동의 호황이 사라짐에 따라 석유 수출국의 성장 둔화를 크게 반영한다.

2020년대 상반기(2020~2024년) 동안 EMDE의 성장률은 평균 3.4%에 그쳐 이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장, 글로벌 통화 정책 긴축 주기 등 최근 몇 년간의 악영향이 겹친 데 기인한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구조적 둔화도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10년 내내 성장의 근본적인 원동력인 노동력 성장(고령화와 관련 된), 자본 축적,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의 상승 둔화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생산에 대한 전망의 감소를 포함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EMDE의 노동력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증가율이 미약하며, 이는 경제가 부채 증가와 무역 성장의 장기적인 둔화와 씨름하면서 지난 10년의 상당 부분 EMDE 성장에 부담을 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본 축적으로 인한 성장 기여도의 감소를 의미한다. 투자 둔화도 주요 요인이다. 새로운 투자가 효율성 향상과 기술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감소 예측의 동인 이전. 모델 기반 추정치는 EMDE 잠재 성장률이 2011-21년 연 5%에서 2022-2030년 4%로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빈곤 감소 목표의 달성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

4. 글로벌 전망 및 위험 요소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과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로 신용 여건이 긴축됨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적인 금융 여건으로 인한 발목 붙잡기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올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수요가 둔화하고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스트레스 금융 위기 및 장기적인 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예상치 못한 지속 또는 추가적인 상품 가격 충격은 예상보다 큰 통화 긴축을 초래하여 금융 스트레스의 재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성장 동인의 둔화는 무역 파편화 및 기후 변화의 심화로 악화할 수 있다.

4.1. 글로벌 전망

세계 성장률은 2023년 2.1%로 둔화한 뒤 2024년 2.4%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된 활동 위축은 특히 선진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단기적 역동성의 주요

요인은 계속 높아진 인플레이션과 그것이 유발한 세계적인 통화 정책 긴축의 조합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장애물은 점차 사라지기 전에 올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세계 생산은 모든 근본적인 성장 동인들의 광범위한 둔화 때문에 둔화하리라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연초 이후의 진전으로 2023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0.4% 포인트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중국 경제의 빠른 재개(Reopening)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전체 글로벌 전망치가 대부분 상향 조정됐다.

모형에 기초한 추정에 따르면, 통화 긴축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미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상반기 가계소비가 상당히 탄력적이었지만, 차입 비용 상승의 영향은 기업 및 주거 투자와 같이 금리에 민감한 활동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은행권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출 기관들이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고 신용 기준을 강화하도록 장려하여 신용 발행을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

통화 전달 속도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 주기에서 평상시보다 다소 느릴 수 있다. 일부 주요 경제권에서는 최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하락하여 정책금리에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의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 가계의 초과 저축과 기업의 이익 상승을 통해 축적된 실질적인 버퍼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시장 집중도의 상승과 높은 이윤의 증가도 마찬가지이다. 마진은 일부 기업을 차입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부터 격리하고 통화 정책 통과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통화 긴축의 지연 효과와 신용 성장 둔화는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기준치 2024년 전망치를 0.3% 포인트 하향 조정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감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 상승률(Headline Inflation)은 여전히 높다.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지속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 결과, 올해의 세계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1월부터 0.3% 포인트 상향 조정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2022년 7.3%에서 2023년 5.5%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한 성장, 낮은 상품 가격, 그리고 여전히 고정된 인플레이션 기대가 합쳐져서,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이 3.7%로 하락하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을 약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상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내년 내내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 목표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다.

5. 정책 과제

최근의 은행 붕괴와 금융 불안정은 건전한 국제 금융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금융 위험 속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 고갈된 재정 완충장치는 지출 효율성 증대와 수입 증대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많은 주권 국가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부채 탕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MDE 잠재 성장의 예상되는 감소를 되돌리려면 물리적, 인적 자본, 노동 공급 증가, 서비스 생산성 및 국제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위기와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를 지원하려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5.1. 주요 글로벌 과제

금리가 급격히 오른 가운데 여러 은행이 파산하면서 가격과 금융 안정의 목표 사이에 잠재적인 균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높은 부채 수준이 존재할 때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파산은 앞으로 국제 금융 규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고려되어야 할 문제 중에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범위와 조정, 바이너리 자본과 유동성 문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 필수적인 담보를 위한 시장에서의 때때로 유동성 부족의 원인, 그리고 정부의 조치가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금융 불안의 추가적인 영향으로 부정적인 국경 간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규제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와 감독의 틀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제정된 개혁은 대체로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의 금융 혼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감독 격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있다.

차입 비용 증가와 성장 둔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국가, 특히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는 채무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EMDE가 지속 가능한 비율로 부채를 조달할 수 없는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빈국의 최소 50%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기에 처해 있다(IMF, 2023). 이러한 도전은 이전 라운드의 부채 탕감에 비해 대출 기관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대출의 투명성이 낮아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졌다.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보유한 EMDE의 경우 국제사회의 구제 노력이

재정 공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G20 채권단은 필요시 부채 구조조정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 채권단이 G20 공통 프레임워크에 준하는 조건으로 부채 탕감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그 결과를 완화하는 것은 중요한 글로벌 개발 과제이다. 기후 변화는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빈번하고 심각한 자연재해들은 건강 결과들을 악화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식량 가격을 증가시키고 악화함으로써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EMDE의 식량 및 물 불안(Jafino et al., 2020; World Bank, 2022).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는 탄력적이고 저탄소 배출 증가를 위한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탈탄소는 다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이 열악한 대기질에 노출된 EMDE에서 매년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Ko et al., 2022). 이미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정책, 재정 제도 및 에너지 부문 구조는 에너지 생산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화석 연료 분배 차질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IEA, 2023)에는 전력 포트폴리오의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가격 설정 도구를 도입하고 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재정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이러한 전환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모든 EMDE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IC는 EMDE보다 더 많은 현금 이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선진국 경제, 국제사회는 식량 및 비료 수출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무역 조치를 피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세계 상품 무역 시스템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농업을 보다 생산적이고 기후에 민감하게 함으로써 식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전쟁과 분쟁의 증가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전쟁 그리고 갈등은 생산량과 생산성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 생활 수준을 상당히 악화시켰다(Dieppe, Celik, Okou, 2021). 폭력적인 충돌은 물리적 자산과 제도를 파괴하고 노동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자본 도피를 유발하며 자원이 생산적인 사용에서 무기와 방어로 전환되도록 한다.

5.2. 신흥시장 및 개발 분야의 과제

많은 나라에서, 높아진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중앙은행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보수적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동시에, 성장 둔화와 재정난의 위험은 느슨한 정책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표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수십 년간 많은 EMDE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 증가는 통화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국경을 초월한 파급 효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시점에서 신뢰성이 상실되면 투자자의 위험 인식이 급변하고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 EMDE가 자본 흐름 변동 및 환율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작년 EMDE 에너지 수입국들 사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환보유고 감소를 적절히 보충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 조건을 개선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변동성이 큰 자금 출처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EMDE는 외환보유고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파급 효과나 낮은 위험 허용도를 통해 EMDE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또한 규제개혁을 통해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시행된 개혁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완충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최근 예외적으로 가파른 세계 통화 정책 강화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용 품질 및 부실 대출 잔액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한 보고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EMDE는 금융 부문에 대한 잠재적 충격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 해결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은행 부문의 회복력은 규제 자본 완충장치의 확충, 예를 들어 대출 비율 및 대출 서비스 소득 비율 강화와 같은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해징 및 다각화를 통한 통화 및 만기 불일치와 같은 시장 위험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EMDE 정부의 국내 은행 자금 조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약화하는 것은 금융 부문이 외부 충격을 증폭시키는 정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험은 정부가 특히 금융 상황이 긴축되는 시기에는 규제와 감독의 적용 범위에 격차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MDE의 재정적 공간은 계속 제한적이며, EMDE의 4분의 3 이상에서 정부 부채가 코로나 19 유행 전 수준보다 높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명목 GDP의 증가는 많은 EMDE에서 2021년과 2022년에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Kose et al., 2023). 그러나 이는 2020년 채무 상환 중 부채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부채 증가와 함께 부채 증가율을 반전시킬 뿐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장과 지출 요구 충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종합 EMDE 재정 기조는 올해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2024년에는 긴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으로 제약을 받는 EMDE에서 지출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더 나은 목표 지원으로 전환하면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필요한 지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효율성은 제한된 재정 공간을 가진 EMDE에서 매우 중요하며 강화된 기관과 국내 거버넌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재정 및 공공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규칙 및 지출 검토의 효과를 개선하는 것은 또한 지출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재정 상황은 성장 전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프라, 교육 및 기후 변화 적응과 같은 개발 요구에 전념하는 투자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동시에 국가들은 높은 차입 비용, 성장 둔화, 잠재 성장 속도 감소라는 현재 맥락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울 수 있는 수입을 추가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Kose and Ohnsorge 2023). 정부 수입이 사전 유행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EMDE와 LIC에 세금 징수가 도전 과제로 입증되었다. MDE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세수의 허점을 개선함으로써 세금 징수 메커니즘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 규칙의 국제적인 조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정부 부채의 구성은 또 다른 재정 정책적 과제를 제기한다. 2022년 중앙 EMDE에서 외화 표시 부채는 비거주자가 보유한 부채와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의 거의 50%를 차지했다. 이 결과 EMDE는 통화 가치 하락 또는 국가 위험 프리미엄 증가(IMF 2023c)를 통해 채무 서비스 비용 상승에 취약하게 된다. 일부 EMDE는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추가적인 부채 조건으로 공공 서비스 부담이 증가한다. 재정 정책은 지난 10년간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해 온 LICs에게 특히 어려운 도전 과제이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채감소 효과는 지속적인 세입 약세와 지출 압력 증가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로 상쇄되었다. LICs의 총세입은 전체 EMDE보다 GDP의 약 10% 포인트 낮으며, 이는 대체로 광범위한 저개발과 취약한 제도를 반영한다. LICs의 정부 지출 구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출 효율성이 낮은 공공부문 임금. 게다가, LICs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적 보호에 더 적게 지출한다. LICs의 사회적 편익 지출은 총 정부 지출의 약 3% 정도로 EMDE의 26%, 선진국

의 40% 이상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급격한 차입 비용의 증가와 긴축적인 글로벌 통화 정책 속에서, 특히 대외 공공부채에 대한 부채 서비스는 더 비싸지고 있다. LIC는 부채 상환을 위해 추가적인 수익을 할당해야 할 것이며, 이는 부채 상환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지출을 확보하기 어렵다. LIC의 부채 한도 개선은 국내 거버넌스 및 제도적 장치 개선과 함께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5.3. 잠재적 성장의 핵심 동력 강화

EMDE 잠재 성장률은 2022~30년 연평균 4%로 1%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10년 평균. 장기 성장의 약화는 EMDE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Kilic Celik et al., 2023). 빈곤 감소 속도를 늦추고,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감소시키며, 일자리 창출과 임금 증가를 제한하고, 부채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예상되는 세계 잠재 성장의 약화를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높은 물리적 자본 투자, 인적 자본 향상, 더 빠른 노동 공급 성장과 관련된 개혁은 전 세계 및 EMDE에서 2022-30년 동안 연간 잠재 성장률을 0.7% 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이는 2011-21년과 2022-30년 사이에 예상되는 세계 참여 경제의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 0.4% 포인트 감소를 상쇄할 것이다. 높은 물리적 자본 투자는 잠재적 생산 성장을 촉진하는 열쇠이다. 투자 성장은 지난 10년 동안 둔화하였고 아마도 느린 성장과 전염병의 지속적인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긴축 재정, 제한된 재정 정책 공간의 결과로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긴축 재정 여건, 제한된 재정 정책 공간 등은 지난 10년간 EMDE 6개 지역(Kasyanenko, Kenworthy, Ruch et al., 2023) 모두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인프라에 대한 현재 지출과 개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1인당 소득 상승에 기여했다(Vagliasindi and Gorgulu, 2021). 특히, 높은 경제적 수익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다. 운송과 에너지, 기후 스마트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토지와 수도 시스템과 같은 주요 분야의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건전한 투자는 모두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EMDE에 대한 인적 자본은 특히 학습 성과를 개선하고 교육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면 최근 몇 년간의 악영향, 특히 팬데믹(Schady et al., 2023)의 중첩으로 인한 손실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 개선은 또한 더 나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 더 확고하게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동력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더욱이 고생산성 기술은 숙련된 인적 자본이 필요하므로 더 나은 품질의 교육 시스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Kasyanenko, Kenworthy, Ruch et al., 2023b).

EMDE의 생산가능 인구는 정체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 인구 증가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Kasyanenko, Kenworthy, Kilic Celik et al. 2023). 정책은 노동력의 규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및 고령 노동자와 같이 참여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노동력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노동력 수요 확대에 중요하다. 높은 여성 실업률과 남성 대비 여성 노동력 참여율의 지속적인 격차를 고려할 때 여성 노동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노동력 참여율이 EMDE 평균의 약 절반으로, 충분한 개선 기회를 강조한다. 관련 정책은 직업 훈련과 같은 여성을 특별히 목표로 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 기업가적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부패를 억제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질을 뒷받침하는 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많은 EMDE에서 제도적 개혁과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혁은 시행할 수 있는 재산권을 확립하고 최소화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수용 위험, 경쟁 촉진 및 시장 집중 제한, 안정적인 정책 환경 조성, 사업 수행 비용 절감,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공식 부문 참여 장려 등의 정책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역자유화와 운송비 하락으로 촉진된 글로벌 무역은 역사적으로 EMDE의 생산성과 생산량 증가의 중요한 엔진이었다. 무역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기인할 수 있다(World Bank, 2020).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국가 간 지식, 자본 및 기타 투입물의 전달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2004년 기술 혁신 국가의 제한적인 발전에 따라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 증가한다. 최근 몇 년간 정책개입이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생산성과 생산성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무역의 이러한 역할이 위협받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부 국가들은 식품 무역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세계 식품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으며, 무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5년간 관세가 상승하여 일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 우려가 대두되었다. 지정학적 긴장은 1970년 세계 상품의 거의 절반 수준인 고속 성장기인 상품의 성장기인 세계 상품 생산에 제한 범위를 두 배로 글로벌 상품의 제한을 부과하였다. EMDE에서 높아진 무역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역협정은 특히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낮추고 민간 부문의 발전과 국내 경쟁을 촉진하는 개혁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내 개혁의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다. 무역 비용은 여전히 값비싼 행정 국경 및 관세 절차에 의해 부풀려진다. 표준화될 수 있는 장벽에는 위생, 식물 위생 및 기타 표준(종종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함), 선적 전 검사, 허가 요건 및 할당량이 포함된다. 무역 및 세관 준수 절차 및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무역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최종소비자 간(End to End) 공급망 디지털화는 EMDE가 포트 지연을 단축할 수 있게 할 것이다(Arvis al., 2023). 마지막으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 규제가 무역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EMDE(Ohnsorge and Quaglietti, 2023)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과 관련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규제를 반영한다.

서비스가 글로벌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할 수 있다. 더 큰 디지털화와 관련된 미래의 성장 기회는 EMDE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디지털화의 확대는 이전에 대면이 필요했던 서비스 부문의 규모의 경제와 혁신에 대한 전망을 개선했다. EMDE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서비스 부문의 낮은 디지털화 시작 수준을 고려할 때 특히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까지만 해도 몇몇 EMDE에서 고객과 통신하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1/3 미만이었다(Nayyar, Hallward-Driemier and Davies, 2021). 역량과 노동자 기술은 디지털 기술의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 ICT와 전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은 성장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iyar, S., J. Chen, C. H. Ebeke, R. Garcia-Saltos, T. Gudmundsson, A. Ilyina, and A. Kangur. 2023. "Ge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Staff Discussion Note SDN/2023/00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Arvis, J. F., L. Ojala, B. Shepherd, D. Ulybina, and C. Wiederer. 2023. "Connecting to Compete 2023: Trade Logistics in an Uncertain Global Economy."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World Bank, Washington, DC.
- Bernanke, B., and O. Blanchard. 2023. "What Caused the U.S. Pandemic-Era Inflation?" Hutchins Center on Fiscal and Monetary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Borio, C., M. J. Lombardi, J. Yetman, and E. Zakrajšek. 2023. "The Two-Regime View of Inflation." BIS Papers 133,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asel, Switzerland.
- Dieppe, A., S. K. Celik, and C. Okou. 2021. "What Happens to Productivity During Major Adverse GLOBAL ECONOMIC PROSPECTS | JUNE 2023 CHAPTER 1 45 E vents." In Global Productivity: Trends, Drivers, and Policies. Washington, DC: World Bank.
- Gagnon, J., and M. Sarsenbayev. 2022. "25 Years of Excess Un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Lessons for Monetary Policy." Working Paper 22-1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Goes, C., and E. Bekkers. 2022. "The Impact of Geopolitical Conflicts on Trade, Growth, and Innovation."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22-9,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3. "Renewables 2022: Analysis and Forecast to 2027."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aris.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 Fiscal Monitor: On the Path to Policy Normalization. April.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3. AR6 Synthesis Report: Climate Change 2023. Geneva: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Jafino, B., B. Walsh, J. Rozenberg, and S. Hallegatte. 2020. "Revised Estimates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xtreme Poverty by 2030."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417, World Bank, Washington, DC.

- Kasyanenko, S., P. G. Kenworthy, F. U. Ruch, E. T. Vashakmadze, C. M. Wheeler, and D. Vorisek. 2023a.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Regions: Trends, Prospects, and Policy Op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0369, World Bank, Washington, DC.
- Kilic Celik, S., M. A. Kose, F. Ohnsorge, and F. U. Ruch. 2023. "Potential Growth: A Global Databas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0354, World Bank, Washington, DC.
- Koh, W. C., and S. Yu. 2020.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ector Policies." In *A Decade After the Global Recession: Lessons and Challenges for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edited by M. A. Kose and F. Ohnsorge. Washington, DC: World Bank.
- Kose, M. A., and F. Ohnsorge, eds. 2023a. *Falling Long-Term Growth Prospects: Trends, Expectations, and Policies*. Washington, DC: World Bank.
- Kose, M. A., and F. Ohnsorge. 2023b. "Overview." In *Falling Long-Term Growth Prospects: Trends, Expectations, and Policies*. Washington, DC: World Bank.
- Metivier, J., M. Bacchetta, E. Bekkers, and R. Koopman. 2023. "International Trade Cooperation's Impact on the World Economy." Staff Working Paper ERS-2023-02,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 Nayyar, G., M. Hallward-Driemeier, and E. Davies. 2021. *At Your Service? The Promise of Services-Led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 Pill, H. 2023. "Inflation Persistence and Monetary Policy." Speech, Bank of England, London.
- Schady, N., A. Holla, S. Sabarwal, J. Silva, and A. Y. Chang. n.d. 2023. *Collapse and Recovery: How the COVID-19 Pandemic Eroded Human Capital and What to Do about It*. Washington, DC: World Bank.
- Vagliasindi, M., and N. Gorgulu. 2021. "What Have We Learn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as a Fiscal Stimulus? A Literature Review."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796,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2020. *World Development Report: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22. *Climate and Development: An Agenda for Action—Emerging Insights from World Bank Group 2021-22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s*. Washington, DC: World Bank.